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0호 【루게 제24878호】 주제104(2015)년 4월 10일(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회의가 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회의는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역척불변의 혁명적 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돐과 조국방방 일흔돐을 강성병영하는 선군조선의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총동원전을 파격히 벌려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소집되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꾼들이 회의에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봉태동지, 현영철동지, 리영길동지, 양형섭동지, 최영립동지, 리용무동지,

오국렬동지, 김원홍동지, 김양건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김평해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 태중수동지, 박도춘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위원회 성원들이 주석단에 자리를 잡았다.

최고인민회의의 의장과 부의장들이 의장석에 앉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최태복의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회의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제 103(2014)년 사업정형과 주제 104(2015)년 과업에 대하여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제 103(2014)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제 104(2015)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3. 조직문제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내각총리 박봉주대원이 하였다.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재정상 기광호대원이 하였다.

셋째 의정과 둘째 의정에 대하여 리무영대원, 김경준대원, 장철대의원, 김만수대원, 태중수대원, 차희립대의원, 김진국대의원, 김희숙대의원, 최영일대의원, 윤재현대의원이 토론했었다.

남용환대의원, 림덕화대의원, 림순희대의원, 백춘기대의원, 김광철대의원이 서면토론을 제기하였다.

토론자들은 지난해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념원을 실현해나갈 천만민들의 열화같은 총성과 순결한 도덕의리심이 높게 발현되었으며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우리의 일심단결이 더욱 공고히 다져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양양이 일어나고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한 표준공장, 본보기건축물들이 도처에 일떠섰으며 당의 과학중시, 교육중시정책이 빛나기 구워져 사회주의경제강국과 문명국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지난해 내각의 사업정형과 국가예산집행이 정확히 총화결산되었으며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올해 과업이 명백히 제기되고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도록 국가예산이 올해 편성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뜻깊은 올해에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더욱 백방으로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과 조국방방 일흔돐을 승려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와 주제 103(2014)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제 104(2015)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채택되었다.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이 토의되었다.

회의에서는 박도춘대원을 직무부동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의하여 김춘섭대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최태복의장이 폐회사를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회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명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2돐을 맞아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이 9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평양시안의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성원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불세출의 선군명장, 민족의 아버지이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승업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향연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동적위군에게 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에 진정되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땀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쓰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반제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로 이끄시며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빛내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아버지장군님께 삼가 인사를 드려었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흠모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서과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송용차와 전동차, 벨, 벨차 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참가자들은 강철의 의지와 초인적인 정력으로 선군장정의 험난한 길을 헤치시면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천사로운 위업을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빛나는 혁명생애를 뜨거운 마음으로 되새겨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길에서 혁명의 지휘성원, 선군혁명의 제일기술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래양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2돐을 맞아 각지에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래양상을 찾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으로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은 군중들의 물결이 끊이지 끊이지 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땀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말이 쓰여져있었다.

군중들은 우리 공화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우시고 련전전승의 선군화를 창조하시어 세계정치사에 거룩한 자욱을 남기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려었다.

김일성총합대학, 김일성군사총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래양상들에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일꾼들,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래양상을 찾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필생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결의를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에서 한 토론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제3차회의에서 진행된 대의원들의 토론들에서는 지난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자기 부분, 단위의 성과와 경험, 교훈이 분석총화되고 올해의 투쟁목표와 그 수행방도들이 제기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꾼들은 누구나 자기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여 당정책의 정당성을 말로써가 아니라 사업실적으로 증명하는 진짜배기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리무영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의 심에 제출된 보고들에서 지난해 내각사업과 국가에산집행이 정확히 총화결산되었으며 경제강국을 건설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도록 올해 내각의 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그에 맞게 국가에산도 훌륭히 편성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지난해 화학공업부문에서 비료와 농약에 비롯한 영농물자와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화학제품들을 생산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벌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홍남과 남흥의 주제비료생산기지들에 대한 전력과 원료, 자체보장대책을 앞세우면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시비전도 영농비료생산계획을 수행하는데 인민경제 선행부문들과 중요대상건설에 필요한 화학제품들을 전량 생산보장하였다.

생산자재들의 정선기를 발동하여 소금생산계획을 128%로 초과수행하였으며 지하초염수에서 의한 집약적 소금생산방법을 도입하여 소금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일꾼들이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지 못하여 나라의 경제전반을 활성화하는데 지장을 주었다. 올해에 주제비료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힘있게 내밀수 있는 결정적인 담보로 마련하고 역량을 총집중하여 비료생산전투를 다그치며 2.8비율만큼 합기업소의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개선하고 생산공정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책을 현실성있게 세워 비료와 기초화학제품생산을 늘여 나가도록 하였다.

아크릴릭제강생산공정과 기계세업공정, 비록세척법에 의한 수직소염소염법용광로건설을 제기일에 무조건 끝내며 석탄가스화에 의한 메타놀 및 올레핀생산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에너지를 절약하며 화학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기술준비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김정준대의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 순회명령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어 산림복구전투를 장군파의 전진으로 선포하시고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창처럼 산림복구전투를 벌일데 대한 련속적인 호소를 하시었다.

그는 지난해 국토관리사업에서 거둔 성과와 나타난 편향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올해 이 부문에서 집행하여야 할 중요한 계획들에 대해 강조하였다.

올해 산림복구전투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박박있게 하여 모든 도시, 군들에서 산림조성 10년전망계획을 구체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반영된 나무심기계획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였다.

나무모생산에 역량을 집중하여 중앙양묘장의 나무모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현대화공사를 적극 다그치며 올해안으로 도양묘장들을 본보기로 꾸리고 모든 시, 군들에서 영양단지에서 의한 나무모생산비중을 높여 심는 나무의 사물들을 결정적으로 높여갔다.

산불감시와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 산불피해를 극력 줄이며 사회주의에 국민운동과 모범산림공조정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조국방위 어디에서나 산림복구전투의 불바람이 세계에 타번지게 하였다.

강화현제방 및 호안공사, 오수정화장, 공업폐수정화장건설 및 개건보수공사를 무조건 끝낼수 있게 장악지도사업을 드세게 내밀었다.

토론자는 위대한 김정은시대 대자연개조전투의 앞장에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고 비상한 각오와 열정으로 올해의 산림복구전투계획을 무조건 집행하며 국토환경보호사업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결사 관철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과학기술자들은 지난해에 평양시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울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실현하는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틀어쥐고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와 나타난 결함들을 분석총화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올해 평양시앞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연구소원회 공중우주분야를 높이고 새로운 평양시, 평양수도, 창조하여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향하는 사업을 지렛대 삼아 선진문명의 중심지답게 더 잘 꾸려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르고 있다.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와 잠재력에 의거하여 짧은 기간에 평양강변이강공공장을 강변이강공공생산의 본보기공장으로 건설하고 통복식로공장의 현대화를 실현하였다.

지방건재공장들의 기술개선을 적극 밀고나가며 강재생산지와 여러 가지 색깔의 외장재, 색기와생산기지를 무조건 도입하여 중요대상건설에 부족하는 자재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였다.

중심지거 건물들에 타일붙이기와 외장재칠하기, 화초장식과 피크시물기를 위한 기술혁신을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다. 평양시앞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연구소원회 공중우주분야를 높이고 새로운 평양시, 평양수도, 창조하여 경제사업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향하는 사업을 지렛대 삼아 선진문명의 중심지답게 더 잘 꾸려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르고 있다.

토론자는 모든 사업을 혁신적으로, 창조적으로 작전하고 지휘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가과학원에 돌려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은정,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알찬 과학기술 성과로 보답할 결의를 피력하였다.

김관수대의원은 지난해에 당에서 수석지원이 부족한 조건에서 화력발전소에서 전력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었으나 나라의 전력생산을 추켜세우지 못하여 전력공급에 영향을 주고 전력량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하지만 불리한 자연환경과 어려운 조건에서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고 전력관리를 개선할수 있는 든든한 토대와 귀중한 경험들을 쌓았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설대상들의 중점건설공사를 한꺼번에 조업을 보장하였으며 전력관리를 과학화할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능력을 높이며 올해 계획된 발전소들의 설비대보수와 구조물보수에 힘을 집중하면서 발전기의 대당 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는 한편 수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적극 개진하였다.

풍력발전기 생산기지를 꾸리고 태양발전지판을 널리 리용하기 위한 기술실무적대책을 세우며 새로운 화력발전능력을 더 조성하고 올해 완공하는 수력발전소들의 인출을 증진건설에 역량을 집중하여 조업이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화력발전소들의 보일러를 순환비동중보이기로 개조하고 전력생산과 전력기술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풀어나갔다.

전력의 도중손실을 낮추기 위한 기술적대책들을 세우며 중요대상중점건설공사를 제기일에 끝내냈다.

태평수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의 심에 제출된 보고들에서 지난해 내각사업과 국가에산집행이 정확히 총화결산되었으며 올해 내각의 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국가에산도 훌륭히 편성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지난해 지어진 당의 평도를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 힘쓴다는 신념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앞세우고 체단장을 1.5배로 높이며 운탄속도를 높여 기업소기간간 석탄생산계획을 완수할수 있게 하였다.

금야전년관점에서 생산을 개선하도록 하여 가스화에 의한 노소비료생산에 이바지할수 있게 하였으며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중요건설대상에 필요한 대상설비들도 원만히 생산보장하였다.

토론자는 이 과정에서 지방공업총생산액계획을 109%, 지방에산수입계획은 144.1%로 초과수행하였다고 말하였다.

올해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키려나갔다. 물질양형문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과학농사방법을 세차게 일으켜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해결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농촌계약공장과 마진유원지 1단계 건설, 도축인양, 애육원건설을 비롯한 대상건설을 무조건 끝내냈다.

산림복구전투를 다그치고 수산물생산을 2배로 높이며 팜포오리공

과 합주택지공장을 비롯한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단위들이 은을 내게 하였다.

국도관리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다리들의 능력확장과 보수공사를 끝내며 510여정보에 250여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한편 밤나무를 많이 심을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90여정보의 밤나무를 새로 조성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시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을 담당하여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자각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놓고 비상한 각오와 열정으로 무슨 일을 해도 끝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감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꽃피워나가는 진짜배기일꾼이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최영일대의원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평도업적이 새겨져있는 순천지구청년관광합기업소에서 지난해에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힘찬 투쟁을 벌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장장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대상들에 굴진력량을 집중하면서 설비자재를 보강하여 많은 석탄을 캐낼수 있는 탄밭을 마련하였으며 기본공장과 준비공장에 의한 확보탄량을 선행시작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도록 하였다.

2월17일과과학자, 기술자들과외 함께 채탄장들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석탄생산능력을 높인것을 자랑하며 막강작업을 보다 힘있게 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그는 패배주의에 빠져 조진타발을 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기업소앞에는 지난해보다 높아진 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하여 화력발전소와 비록한 인민경제 중요대상들에 필요한 석탄을 보장해야 할 전투적 과업이 나르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실현하는 것을 생명선으로, 주선으로 틀어쥐고 노내세우고 비료를 비탄하여 농사에 필요한 영농물자를 최우선보장해 주었으며 정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농촌을 지원하도록 최후까지 힘을 집중하면서 언급하였다.

당의 평도를 높이 받들고 황해남도에서 100년이며 처음 보는 왕복을 극복하기 위한 농사작전과 지휘에 힘을 집중하면서 불리한 농사조건을 이겨낼수 있는 과학농법을 받아들이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농업부문 일꾼들속에서 왕복을 지수되는 조건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방법론있게 전개하지 못하고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부러뜨리지 못하여 알뜰생산계획을 미달하였다고 하면서 올해에 거어 알뜰생산목표를 정정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불리한 농사조건에 맞게 가을에 잘 전진해서도 수확성이 높은 종자에 의한 논벼영양단지모기기를 비롯하여 선진적인 비농사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이미 마련된 물원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었다.

논밭에 기름과 휴토비료를 더 많이 내면서 과학적인 땅다지기 방법, 강변이점제에 의한 두벌농사방법을 도입하며 보조관리제안에 선진적농업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을 향상시키고 있다.

토론자는 황해남도에서는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식량문제를 푸는데서 한몫담당하야 하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순간도 잊지 않고 올해 알뜰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희숙대의원은 정주시에서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지방공업총생산액계획은 100%, 지방에산수입계획은 130%로 수행하고 8월31일인민소비품생산은 그 전례에 비하여 122%로 늘인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시인의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공정을 현대화하여 생산을 활성화하고 원료기지를 높일수 있게 하였으며 원료기지들에 700여의 알뜰목 생산하였을뿐 아니라 100여의 산물과 산나물을 채취하고 소금을 자체로 생산하였다.

가내작업단들을 활발히 운영하고 8월31일인민소비품생산에 힘을 넣어 320종에 9만 4 000여점의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하였으며 상업, 금야전년관점에서 지난해에 국가과학원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과학원사업에 나서는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고 과학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장철대의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에 국가과학원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과학원사업에 나서는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고 과학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장철대의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에 국가과학원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과학원사업에 나서는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고 과학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장철대의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에 국가과학원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과학원사업에 나서는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고 과학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장철대의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에 국가과학원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과학원사업에 나서는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고 과학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장철대의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에 국가과학원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과학원사업에 나서는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고 과학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장철대의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에 국가과학원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과학원사업에 나서는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고 과학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장철대의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에 국가과학원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과학원사업에 나서는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고 과학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장철대의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에 국가과학원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과학원사업에 나서는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고 과학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장철대의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에 국가과학원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과학원사업에 나서는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고 과학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장철대의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에 국가과학원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과학원사업에 나서는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고 과학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장철대의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에 국가과학원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과학원사업에 나서는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고 과학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장철대의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에 국가과학원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과학원사업에 나서는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고 과학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장철대의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에 국가과학원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과학원사업에 나서는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고 과학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 기업소에서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연간 물고기잡이목표를 306%, 국가에산납부계획은 281%로 초과수행되었으며 올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내각의 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그에 맞게 국가에산도 훌륭히 편성되었다고 하면서 전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물고기생산에만 치우치면서 것잡음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짜고들지 않고 겨울철에도 물고기잡이를 활성화할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여 출어일수를 보장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인민군대 수산부문 일꾼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 당정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벌인것을 자랑하며 물고기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나갔다.

회에서는 서면토론들도 제기되었다. 남흥대의원은 지난해에 팜포오리공장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지침으로 틀어쥐고 더 많은 오리고기를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우리는 생산을 늘이는 방도를 과학기술에서 찾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 새 오리목종을 개발하였으며 종업원들의 정선력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시범을 창조하고 그 경험을 온 공장에 일반화하였다.

자재의 힘으로 동물성단백역이생산지지를 일떠세워 사료를 보장하였을뿐 아니라 미생물첨가제를 개발하여 많은 알뜰목기를 절약하였다.

토론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것을 생명선으로, 주선으로 틀어쥐고 노내세우고 비료를 비탄하여 농사에 필요한 영농물자를 최우선보장해 주었으며 정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농촌을 지원하도록 최후까지 힘을 집중하면서 언급하였다.

좋은 종자확보와 충분한 먹이보장, 과학적인 사양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의 방목대책을 추진발전의 4대 고리로 밝혀준 당의 의도에 맞게 종재 육종사업에 선진적인 관심을 들리었다.

과학기술지식보급실을 현대적으로 꾸리는것과 함께 종업원들의 과학적식수준과 기술수준을 높여 사양관리를 과학화하며 생산기술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전망계획과 단계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워 인민들의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인수님의 숭고한 뜻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책임과 부분을 다하여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인민들의 식량에서부터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나오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토론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담당하여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자각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놓고 비상한 각오와 열정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해나감으로써 높은 물고기 생산성과를 올리고 10월의 대추전향에 멋있게 들어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장철대의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에 국가과학원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과학원사업에 나서는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고 과학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장철대의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에 국가과학원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과학원사업에 나서는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고 과학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장철대의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에 국가과학원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과학원사업에 나서는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고 과학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장철대의원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에 국가과학원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과학원사업에 나서는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고 과학자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것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인데 대해 말하였다.

농장에서는 과학적인 토양분석자료에 기초하여 정보당 논에는 35이상, 밭에는 50이상의 질 좋은 거름을 냈으며 가을에 잘 건지고 수확량이 높은 품종들을 선정하여 합리적으로 배지하고 논벼영양단지모재배방법을 모든 면적에 받아들여 종자와 비닐박막을 비롯한 모판자재와 노력을 3분의 1로 절약하면서도 모대기를 앞당겨 끝냈다.

가물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후진설비와 아이노산미량복합비료를 비롯한 대용비료를 여러차례 채우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그 전례에 비해 정보당 논벼를 더 수확하였다.

발상사에서 앞뒤그루와 겹재배, 생육기일이 서로 다른 강변이점제배를 비롯한 선진적인 농작물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토지리용률을 1.5배로 높였다.

우리는 올해에 지력을 높이는데 계속 큰 힘을 넣으면서 농장의 비옥성과 토양조건에 맞는 품종배지를 합리적으로 짜고들고 그 우월성이 확증된 논벼영양단지모재배관리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하였다.

토론자는 지난해에 정보당 논벼를 더 수확하였다. 김광철대의원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할수 있도록 올해 내각의 과업이 명확히 제기되고 그에 맞게 국가에산도 훌륭히 편성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토론자는 지난해 오가산자연보호구관리로서 산물막이대책을 세우고 산림조성과 관리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나타난 결함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올해에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주선으로 틀어쥐고 오가산자연보호구관리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려나가는 할 과업이 나르고있다고 하면서 그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새로운 당정책을 실시하여 감독관들을 비롯한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가 맡은 구역에 대한 보호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정당한 사업체제를 세우며 일선직무를 엄격히 세우겠다.

원격감시체제를 이루는 설비들의 전원보장을 위한 소형발전소건설을 비롯한 보호구에 대한 과학적인 보호관리체제를 더 잘 세워나갔다.

산림복구전투에 펼쳐나설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산림조성 사업을 짜고들어 더 많은 나무를 키워내며 불철과 가을철나무심기 기간에 나무들을 많이 심어 자연보호구안에 단행의 빈방도 없게 하였다.

토론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담당하여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자각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놓고 비상한 각오와 열정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해나감으로써 높은 물고기 생산성과를 올리고 10월의 대추전향에 멋있게 들어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담당하여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자각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놓고 비상한 각오와 열정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해나감으로써 높은 물고기 생산성과를 올리고 10월의 대추전향에 멋있게 들어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담당하여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자각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놓고 비상한 각오와 열정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해나감으로써 높은 물고기 생산성과를 올리고 10월의 대추전향에 멋있게 들어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담당하여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자각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놓고 비상한 각오와 열정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해나감으로써 높은 물고기 생산성과를 올리고 10월의 대추전향에 멋있게 들어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와 병진로선, 존엄과 승리에 대한 감명깊은 형상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운명》에 대하여

오늘날 세계의 많은 나라 인민들은 조선에서 태어난 선군은 곧 승리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우리 당이 선포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에 대해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병진로선이 발휘하는 위대한 생활력에 당황 당한 자들은 악의에 찬 비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조국은 무엇을 위해 병진의 길을 헤쳐나가는 것이며 그 앞길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해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운명》은 1960년대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전략적 결정을 제시하고 세계의 자주화위업선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세계사적업적을 쌓으신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형상을 통하여 깊이 있게 밝히고 있다. 하여 작품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강렬한 시대정신이 굽어차게 되었으며 작품이 제기하고 해명할 주제는 오늘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따라 선군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천만군민에게 필승의 신심을 북돋아 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제국주의 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입니다.》

장편소설 《운명》(정기종 작)의 이야기는 주제 53(1964)년 가을로부터 시작된다. 이때는 우리 당이 병진로선을 내놓은 때로부터 2년이

되는 해였다.

이렇게 우리의 병진로선은 21세기에 태어난것이 아니라 벌써 수십 년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독창적인 로선이었다.

그해 8월 미제는 헬남에서 바르코만사건을 도발하였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압박을 가해왔다. 그런가 하면 우리 공화국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달가와하지 않는 대국주의자들은 이미 맺은 계약까지 어기면서 우리의 경제건설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있었다. 이런 속세 사대주의에 오염된 일부 일꾼들은 여러 나라들의 경제를 통합운영하는 세브레가입해야 한다는 열빠진 소리까지 늘어놓고있었다. 참으로 복잡다단한 해였다.

병진로선관철의 초행길에 조성된 난관앞서 우리 수령님께서 높이 추켜드신고 내세우신것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자주이고 존엄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내각일꾼들이 긴박한 경제형편을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와 교섭하려 한다는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로동계급을 믿고 우리에게 필요한것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었다.

발동에 불이 떨어진다고 하여 존엄을 쟁취하고 남에게 머리숙이게 되는데는 사대주의의 늪에 빠지게 된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땅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는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수십년간의 혁명투쟁을 통하여 찾으신 진리였다.

제망이 있고 좋은 인민이 있어도 자주를 지키지 못하면 병진로선 관철의 길을 쫓아가 걸을수 없다는것을 우리 수령님께서 이 시기에 더욱 깊이 새기게 되신다.

소설에는 국방건설과 관련한 이야기 가 설정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숭고한 국제주의를 지니시고 미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꾸바와 헬남인민들에게 물심양면의 아낌없는 지원을 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의 병진로선인 얼마나 위대한가를 절감하게 한다.

우리 수령님께서 국방건설에 많은것이 필요하였지만 미제의 침략 위협과 공격을 받고있는 나라들이 요구하는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다 보내도록 하신다.

이것은 결코 어느 위인이나 쉽게 내밀수 있는 용단이 아니었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영도자라고 하여 다 발휘할수 있는 국제주의가 아니었다. 하여 꾸바의 피델 카스트로는 동방의 조선처럼 조국보위도 경제건설도 자체로 해나가야 하는 준엄한 시기에 꾸바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이치고 그들에게 로동계급을 믿고 우리에게 필요한것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었다.

발동에 불이 떨어진다고 하여 존엄을 쟁취하고 남에게 머리숙이게 되는데는 사대주의의 늪에 빠지게 된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땅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는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수십년간의 혁명투쟁을 통하여 찾으신 진리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자주의 리념, 혁명적의리에 절대적으로 매혹된 호志明은 헬남을 방문하신 어버이수령님을 환영하는 군중대회장에서 우리 수령님을 끝없이 신뢰하며 우리도 조선형제들과 같이 천리마를 타고 달려가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던 것이다. 그후 헬남인민들을 교살하기 위해 미제가 무차별적인 폭격을 들이쳐 미제 호志明은 우리 수령님께 조선인민군의 비행사들을 파견해 주실것을 삼가 요청하였었다.

미제의 침략광기가 살벌하게 몰아치던 1960년대에 병진로선을 관철하면서 다른 나라를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하고 사회주의진영의 단결을 위한 투쟁에 앞장선다는것은 험난한 담력과 배양을 가지고서는 엄두도 낼수 없는것이였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께서는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어 병진로선도 관철할수 있고 반제자주위업선철을 위해 철 목소리도 당당히 낼수 있다는 절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시대의 흐름을 주도해나갔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불후의 로고와 헌신에 의하여 병진로선관철의 길을 줄달음쳐가는 조국방어는 눈부신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었으며 빛나는 승리가 이루어졌다.

소설에는 1960년대의 격동적인 시대상이 서사적화폭으로 펼쳐지고 있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우는 항해제철소(당시)의 용광로에서 쇠물포가 쏟아지고 원양선단들이 굶주리는 파도를 헤치며 버리는 물고기가 전두와 함께 우리의 천리마 추진화에 대한 이야기가 가슴벅차게 펼쳐지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의 건립, 헬남의 하늘에서 오만하게 날뛰던 미제의 공중비적들을 가을의 락업처럼 좌멸구는 우리의 영웅한 비행사들의 무비의 위훈과 무장간첩선 《후에블로》호 나포... 소설은 잊을수 없는 년대에 대한 기묘한 형상을 통하여 병진로선관철의 길에서 이룩된 기적과 승리에 대해 후대들이 피골기처를 받아안아야 하는것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있다. 여기에 이 작품이 발휘하는 또 하나의 커다란 감화력과 진인력이 있다.

작품에는 자주성과 존엄을 떠난 승리란 있을수 없다는 사상이 진하게 흐르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 거창한 폭과 규모로 진행되는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시는 나날에 천만군민이 자주성과 존엄을 목숨처럼 간직하도록 하시기 위해 온갖 실험을 다 내치시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동해에 새로 띄운 《백두산》호를 보시면서 조국의 바다뿐아니라 세계의 대양들에 우리 배들이 진출하면 인민생활이 더욱 높아지는것은 물론 우리 사람들의 가슴도 더 넓어질것이라고 고사하신다. 우리 수령님께서서 제 8차 세계적추진선대회 본선경기에 참가하게 된 추수선수를 만나시어서도 동무들은 세계(화강)를 자랑하던 미제를 타당한 영웅선수의 체육적인 배를 배를 안고 싸워 경기마다에서 조선의 본배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고무격려하시었다.

작품에는 병진로선관철의 담담자들이 천만군민이 영원히 간직하여야 할

것을 잊지 않았다.

그때 당안에 기여하였던 불순분자들은 큰 나라에도 이와 같은 탐은 없다고 하면서 그 규모를 축소하며 조각상형상에서도 혁명전통의 순정성을 거세하려하였다.

이자들의 책동이 엄중한 후과를 빚어내고있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일꾼들과 창작가들에게 혁명의 운명이나 민족의 자주권을 위대한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때려놓고 생 각할수 없다고 일깨워주시며 마땅히 우리의 힘에는 항일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을 정중히 기념함으로써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신다.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시는 첫 시기에 벌써 모든 문제를 혁명적정정판에 기초하여 풀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시기에 생소한 헬남에 가는 비평사들에게 우리 군대는 수령님의 군대라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며 수령님의 사상과 전법대로만 싸워 승리해야 한다는것을 깊이 심어줄때 대한 정치사상의 내용도 환히 밝혀 주시는것이였다.

조선혁명의 명맥도 내 나라의 승리와 번영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어 이어지고 이룩될수 있다는 철리를 신념의 기둥으로 세겨안아야 하는 배신을 안고 싸워 경기마다에서 조선의 본배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고무격려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 열어나가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믿음직하게 받들어

나간신 병진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의 길에는 기적과 위훈만이 수놓여져 있지 않았다.

작품에는 목걸 많은 운명을 겪어온 사람들을 따듯이 품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사랑의 전설도 있고 영기에 추동된 벼모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저수지의 물맛까지 보아주시는 가슴뜨거운 생활화폭도 있으며 온 나라 인민이 우리 선수들의 추경봉기도를 들고 기뻐하고있을 때에도 그 소식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여주지 못했것을 두고 못내 아쉬워하시는 인민의 어버이의 고결한 품모도 반영되어 있다.

소설은 승리와 사랑으로 엮어진 년대에 대한 서사적화폭을 통하여 수령님의 권위이자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고 자주성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수령관들의 참 뜻을 생활적으로 철학적으로 밝히었다.

자주의 신념을 베투산악처럼 버리고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빛내 주시는 위대한 수령이 열어나가는 길에 승리만이 있다는것을 격동의 년대를 통하여 천만군민은 운명의 철리로 뼈에 새겼다.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변함없이 이어가오시는 선군의 길이 천백만 정당하며 최후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신들 믿고 이 확신하고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운명》은 력사의 목소리로 다시금 힘있게 론증해주시었다.

차 수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 조국 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9일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 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원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영도조국의 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던 토대를 마련해주시고

제일동포자녀들에게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

각지에서 진행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영도

따라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자랑

노래선수에 맞추어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청춘의 기백이 맥박치는 《조국도 빛나리 청춘도 빛나리》, 《조국에 청춘을 바쳐가리》의 노래들을 따라부르며 춤출때마다 애가는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희를 받들어 대고진군의 격정장마다에서 조선청년의 불굴의 기상을 펼쳐가는 긍지와 자량이 어려 있었다.

회색의 선군영양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흐르는 무도회장에 《용애야》, 《노들강변》, 《돌파하라 최철단》, 《승리는 대를 이어》 등의 노래들이 연이어 울려 퍼지며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영도자》의 노래로 끝난 무도회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찬탄하며

후원을 새겨갈 청년전위들의 불타는 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이날 각 도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도 경축무도회가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역사적인 인도네시아방문을 진행하신 50돐에 즈음한 친선모임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역사적인 인도네시아방문을 진행하신 50돐에 즈음한 친선모임이 9일 대동강의교단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원장, 관계부서 일꾼들, 조선인민단체사이 친선 선교구역 불꽃고급중학교 교원, 학생들과 방방방 히엔드라스조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인민은 그 품에 깊이 살리려》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도회들이 시작되었다.

청년학생들은 조국의 강성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초인간적인 정력과 헌신의 로고를 바치며 선군조선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영과 업적을 되새기면서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노래 하세 친군인 인민의 영도자》

가운데 기속사건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당회의가 열렸다. 학생들이 물고기를 하지 않도록 수백만능력의 물양크고 뿔프장을 새로 건설하고 기속사를 통해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진한 높은 목표가 제시되었다. 순간 장배는 술렁거렸다. 자체의 힘으로 해낼수 있었는가 하고

이 활짝 피어났다. 그들의 밝은 모습을 바라보며 교육자의 긍지와 보람을 가슴벅차게 느끼던 그날을 영원히 잊지 못할것 같다고 한 로동들은 우리에게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로 이어졌다. 지난해에 전국교육실험기구 및 교원포럼대회와 제 25차 전국포럼그럼정연 및 전시회, 제 15차 전국교육부서 프로그램 전시회에서 수많은 학위학직소유자들과 10월 8일모범교육자, 교육수행능력증소유자들이 나

제30차 중앙과학기술축전이 진행된다

제30차 중앙과학기술축전이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4월 22일 3대혁명전선에서 개막된다.

연구 및 교육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하는 축전에서는 과학기술로 총하며 모든 면에서 앞서나가고있는 단위들에서 이룩된 성과들이 소개된다.

제30차 중앙과학기술축전은 과학연구부서에서 최첨단과학 기술을 힘있게 벌리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의 것으로 틀어쥐고 뚜렷한 올해의 총공적들을 벌려나오도록 적극 추동하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다.

자제의 힘으로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원장, 관계부서 일꾼들, 조선인민단체사이 친선 선교구역 불꽃고급중학교 교원, 학생들과 방방방 히엔드라스조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축전에서는 과학기술성과표회가 진행되게 되며 각종 첨단 기술제품표류부사, 전시경연도 있게 된다.

제30차 중앙과학기술축전은 과학연구부서에서 최첨단과학 기술을 힘있게 벌리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의 것으로 틀어쥐고 뚜렷한 올해의 총공적들을 벌려나오도록 적극 추동하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다.

원산 사범대학에서 돌격대원들은 공사기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깊은 밤에도 조명등을 설치하고 작업을 중단없이 진행해나갔다. 맑은 몸이지만 개건전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뜨지 않는 일꾼도 있었다.

공사장정에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대학의 일꾼들과 교직원들은 힘찬 투쟁을 벌려 공사를 한달만에 끝냈다.

이곳 일꾼들이 기속사건을 위해 바치는 나날은 비록 길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가슴속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학생들은 실력제고를 위해 분발해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출판소일꾼인 한성명동무와 종업원들은 종이생산기계를 자체로 무리해서 고질 좋은 종이를 생산하여 수많은 새 교재들을 출판보장하였다.

제6차 전국의료기구전시회 진행

제6차 전국의료기구전시회가 7일부터 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병원 등에서 내놓은 인공상팔복, 두, 복부초음파진단기, 비메오 위시시, 수자식식전계, 수자식근전계, 갑상선기능항진증진단치로기, 나노은플로프로필렌 봉합실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혜에 치료효과를 더욱 높일수 있게 만든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전시회를 통하여 각종 의료기구를 절충해 만들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많이 차려지게 할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희를 받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었다.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

일본 데이비 수카르도 사무소 소장일행 도착

제17차 김일성화 수카르도 일본 데이비 수카르도 사무소 김일성화 김정일화 소장파 일행이 9일 보급후원회 명예회장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인 라트나 사리 데이비 하였다.

제6차 전국의료기구전시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다.

시애 라페온국적선박 《유엔-7》호의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집회에는 연설자들이 있었다.

비동화소아마비예방약 도입 행사 진행

바를피바이 씨디코 평양외과외부성대표 브 순회대사를 단장 단이 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 조국방문단 도착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 조국방문단이 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경축집회를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 조국방문단이 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추진하신 22쪽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 집회가 7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비동화소아마비예방약도입 행사가 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유엔 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및 단체들이 모든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소아마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전시회를 통하여 각종 의료기구를 절충해 만들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많이 차려지게 할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희를 받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었다.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 조국방문단 도착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 조국방문단이 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경축집회를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 조국방문단이 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추진하신 22쪽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 집회가 7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비동화소아마비예방약도입 행사가 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유엔 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및 단체들이 모든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소아마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전시회를 통하여 각종 의료기구를 절충해 만들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많이 차려지게 할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희를 받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었다.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 조국방문단 도착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 조국방문단이 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경축집회를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 조국방문단이 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추진하신 22쪽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 집회가 7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비동화소아마비예방약도입 행사가 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유엔 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 및 단체들이 모든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소아마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